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1, Vol. 16, No. 3, 303-329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자대학생들의 직업결정과정: 근거이론 접근*

김 영 실 임 성 문†

충북대학교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참여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데 비해 인력활용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진로상담영역에서 '진로선택'과 관련된 원인에 주목하였다. 전통적으로 직업을 여성중심 또는 남성중심 직업으로 분류할 때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남성중심 직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편중현상을 해소해야만 다양한 인력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경험구조 및 직업결정 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밝혀 여성 진로지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남성중심적 직업을 선택하며 취업준비중인 대학교 3학년 이상 여학생 8명을 심층면접한 녹음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1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들을 토대로 핵심범주인 '특별한 삶을 위해 의지를 갖고 도전해 나가기'가 도출 되었다. 또한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를 구분하였다. 과정 분석을 통해 기질과 포부 인식 단계, 내적결의 단계, 지지와 수용 단계, 도전과 극복의 순환 단계, 긍정과 확신의 단계로 총 5 단계의 직업결정 과정이 밝혀졌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어 : 남성중심적 직업, 직업결정과정, 근거이론

---

* 이 연구는 임성문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김영실의 2011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Tel : 043-261-2190, E-mail : sungmoon@chungbuk.ac.kr

www.kci.go.kr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국가발전전략 중심에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인적자원의 활용이 남성편중으로 이루어지고 우수한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성계의 노력으로 여성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지만 문화나 관행의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은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권태희, 조준모, 2007). 2009년 처음으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2.4%로 남학생의 81.6%를 앞질렀고, 학교단위의 고급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남녀간의 양적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통계청, 2009). 그러나 한국의 여성 노동력 활용 실태는 매우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인 69%보다 현저히 낮은 56.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급관리직에서의 비율은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인다. 2007년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대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율은 32.3%이며 이중 임원급은 4.4%에 불과해 남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거의 동등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며, 전체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6.6%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노동부, 2007). 이와 같은 자료들은 귀중한 고급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학력 여성들의 저활용 원인은 기업의 성차별적 고용관행, 결혼과 출산 등 전통적 여성의 역할로 인한 장애 등 다양하지만, 그 중 한 원인으로 진로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의 진로선택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영역과 비전통적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는 대학의 전공 또는 직업 내에서 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중심(female-dominated)의 전공 또는 직업을 말하며, 후자는 여성이 소수인 남성중심(male-dominated)의 영역을 말한다(이현림, 천미숙, 2003). 예를 들면 간호학과 또는 간호사, 교사, 항공승무원 등과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게 전형적인 영역이며, 후자는 공학관련학과나 엔지니어, 건설업종, 군인이나 경찰 등 여성의 진출이 드문 남성중심적 영역을 말한다. 여성 진로지도와 상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여성 스스로가 전통적 영역에서 벗어나 비전통적 영역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Tuner & Lapan, 2005). 그러나 여성의 진로선택에서의 장애물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전통적 영역인 남성중심적인 직업에서의 능력과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흥미를 갖지 못하고 회피하는데 있다(Betz & Hackket, 1981). 또한 Gottfredson(1981)에 의하면, 여성들은 마지막 직업선택의 한계와 타협 과정에서 가장 초기에 발달된 사회적 성정체감이 흥미와 가치에 대한 자기지각보다 자아개념에서 더 기초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직업영역에서의 부조화나 괴리는 견딜 수 있어도, 성특성과 직업의 부조화는 가장 못 견딘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전공 선택에서부터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07년도 교육인적지원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육계열에서 여학생 비율은 대학생 58.7%, 석사과정 73.5%, 박사과정 6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공학계열 여학생의 비율은 대학생 12.9%,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14%와 10.5%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최지영, 2008, 재인용).

이러한 성별 직종 분리문제는 여성고용형태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게

www.kci.go.kr

나타나는 국가이다(전복희, 2009). 성별 직종 분리문제는 전세계적인 이슈로서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회의에서는 성별 직종분리 철폐를 목표로 하는 '북경행동강령'을 제창하였고, 여기에 서명한 189개국은 현재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노력과, 남녀간 역할 차이를 예전만큼 강조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또는 여성의 편중이 심한 직업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이 해소되고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성인력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진로선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 낮은 남성성, 높은 여성성, 중요남성의 영향, 수학(math)회피, 성공 회피가 여성중심적 영역의 직업선택을 하도록 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용자, 1994). 여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높은 남성성과 여성성 및 자기 존중감이 진로 장벽을 낮게 지각하도록 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항심, 2007). 또한 이기학(2003)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남성중심적 직업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검찰, 경찰, 공안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이 폭증하여, 1998년 17명(1.6%)에 불과하던 여성 검사는 2007년에는 220명(13.6%)로 8배나 늘어났다. 여자 경찰 또한 1998년 1.8%에서 10년 사이 5.7%로 3배 넘게 늘어났으며, 교정 및 보호관찰직 여성공무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4.7%에서 9.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 직업에 진출한 여성은 여전히 집단 내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여성 진로발달 연구에 있어서 이들이 갖는 연구적 가치는 매우 크다. 이러한 여성들의 증가는 여성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보다는 사회적으로 성유형화된 직업을 선택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뒤집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들의 직업결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노동시장의 글로벌 이슈인 성별 직종분리를 해소하고, 여성 진로상담의 목적인 여성 스스로가 비전통적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uper(1990)는 직업결정과 적응의 일련의 과업들을 기술함으로서 직업결정 과정(process)을 중요시하고 있다. 진로결정과 미결정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위해서는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교 석차 10위권이내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우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결정과정을 탐색한 질적연구(하정, 2008; 강혜원, 곽형선, 남경민, 유성경, 하정, 2010)를 시작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정한 진로가 대학진학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학업우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우수 청소년들만이 겪는 특수한 경험과 진로결정과정은 잘 드러났지만,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수, 의사, 법조인

www.kci.go.kr

등 소수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 많은 대학이 학부 또는 계열별로 신입생을 선발한 후 2, 3학년이 되어야 세부전공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격적인 진로결정여부는 대학교 3학년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 고학력 여성의 실업난 및 저활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에 여성들의 여성중심적 직업 편중 현상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이때, 특히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대학교 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의 직업결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나 전공이란 용어보다는 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결정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진로'라는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고 전공이라는 용어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직업'이란 용어가 그 의미의 범위에서 적절할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을 밝히는데 적합한 개념이라는 선행연구자의 제안을 적용하였다(하정, 2008).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복잡한 직업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분석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질적분석방법은 전통적인 양적 방법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을 반영하는 탐색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reswell, 1994). 첫째, 연구문제의 특성이 질적 연구에 부합될 때이다. 질적연구의 연구문제는 왜라고 물으면서 집단들을 비교하거나 관련성의 관계 또는 원인과 영향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양적 연구문제들과 대조된다. 질적연구에서는 주로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시작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최초의 탐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술하게 된다. 본 연구의 관심사도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이 어떻게 그러한 직업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 시작과 현상에 관심이 있다. 둘째, 주제가 탐색될 필요가 있을 때 질적 연구를 선택한다. 이는 변수들이 쉽게 확인될 수 없다는 것과 참여자들이나 연구 모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 없고, 그래서 이론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도 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에 직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나 직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질적 연구를 활용한다. 양적 연구방법을 광각렌즈 또는 원거리 전경에 비유하자면 질적 연구는 근접 관찰에 비유할 수 있다. 특히 연구 대상자가 사회문화적으로 소수집단일 때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한데,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은 확실히 사회문화적인 소수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했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연구하기 위해 질적접근을 선택한다. 이는 연구의 상황이나 현장으로 가는 것, 접근하는 것, 자료를 수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양적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질문지나 실험상황을 통한 자료수집이 아니라 연구 대상을 직접 만나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방법

www.kci.go.kr

들 중에서도 특히 근거이론방법(ground theory)은 '참여자가 경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으며(Schreiber & Stern, 2001), 국내에서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적인 심리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김요완, 2009; 백은정, 유영권, 2004; 신영주, 김유숙, 2009; 유근준, 김봉환, 2010; 이경순, 2008; 하정, 유성경, 2007). 따라서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결정과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인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2009)에서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직업지도(jop map)'를 사용하였다. 직업지도에 제시된 직업명은 한국 표준산업 직업 세분류별 기준에 따라 구분되었다.

각 직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을 참고하여 남성중심 직업집단을 구분하되, 몇 %를 기준으로 남성중심 직업으로 구분할 것인지는 Byrne(1993)의 분류를 참조하였다. 즉 조직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15%미만인 직업을 남성중심적 직업으로 정의하였다.

추출한 세부직업은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직(판사 및 검사, 변호사, 경찰관, 소방관), 운전 및 운송 관련직(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건설관련직(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기계 관련직(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항공기 정비원), 재료관련직(금속 ·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정보통신 관련직(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이다.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우선 경기 및 충북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과대표 학생에게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제시한 조건은 현재 대학에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중 남성중심적 직업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 관련 국가고시, 자격증, 취업시험, 대학원 진학 시험 등을 1년 이상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선택직업	학년	전공
1	항공기조종사	4	항공운항학과
2	국선변호사	4	법학과
3	군인	4	군사전략과(사관학교)
4	군인	4	국제관계학과(사관학교)
5	엔지니어	3	기계공학과
6	경찰	4	경찰행정학과
7	경찰	4	사학과
8	관제사	4	항공교통학과

www.kci.go.kr

다. 그 결과 총 8명의 연구참여자가 모집되었다(표 1)

연구자

주 연구자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석사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을 두 학기 동안 수강하였다. 이와 별도로 '질적연구방법'을 주제로 열린 2010년도 상담심리학회 동계학술연수를 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질적연구 논문들을 개관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 스터디그룹에서 공부하였다. 또한 주 연구자는 진로탐색 및 직업결정에 대한 집단상담에 20시간 참가하였으며, 학부 졸업 후 연구자 자신이 여성으로서 대표적 남성중심적 직업인 군인(공군장교)으로 5년간 복무하였다. 복무 중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여성 新직업 박람회'에 공군지원요원으로 파견되어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대위로 전역한 이후에는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하였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근무하며 진로검사 실시 및 해석과 진로상담 등의 실무에 종사해 왔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심층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은 근거이론 자료수집방법으로 비구조적 회고 인터뷰를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비구조적 회고 인터뷰는 참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과정을 확인 할 수 있고 이야기 식의 자료로서 연속적인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근거이론을 개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았다.

인터뷰는 1회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테이프 리코더에 녹취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했다. 인터뷰 장소와 일시는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였다.

인터뷰에 대해 Strauss와 Corbin(1998)은 깔대기 접근(funnel-like approach)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폭넓은 개방형 질문으로부터 점점 구체적인 질문으로 탐색해가는 인터뷰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구체화하고 이전 진술을 명백히 밝히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지금의 직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00씨가 여성이라는 것이 직업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경험, 사건, 사람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직업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직업을 갖고 그 일에 종사하게 될 때 00씨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이다.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

www.kci.go.kr

하고 각 단계를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개방 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개방코딩 동안에 자료는 개별 부분으로 분해되어 꼼꼼히 검토된 후,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교된다. 본질상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은 "범주"라 불리는 한층 추상적인 개념 하에 무리지어진다(Strauss & Corbin, 신경림 역, 2001).

축 코딩(axial coding)

축 코딩은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신경림 역, 2001). 축 코딩에서는 개방 코딩으로부터 출현한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의 밀도를 높여 나가고 범주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한다. 무엇보다 축 코딩의 분석적 도구인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를 밝히고 시간의 역동적 흐름에 따른 범주간의 관련성을 살피면서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과정을 단계로 설명하였다.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거쳐 더 높은 추상적 수준으로 발전된 범주들을 이론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교화 하였다.

한편, 분석된 결과의 신뢰성과 전이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신뢰성은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 전이가능성은 외적타당도의 개념과 유사한 일반화와 비교될 수 있다. 우선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뷰에서 추출한 개념들을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읽어보게 한 뒤, 실제 그들의 경험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확인과정은 이메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이 제대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였다.

전이가능성은 연구결과가 연구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를 보는 것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 3명에게 본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 결과인지 검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검증과정은 이메일로 진행 되었으며 3명 모두 연구결과에 공감하였고 자신에게도 적용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코딩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분석에 임했다. 특히 6하원칙에 근거하여 '누가 직업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쳤는가?', '언제 직업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어디서 직업선택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구하는가?', '무엇이 직업선택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 '어떤 이유로 선택하고 진행하나 가는가?'를 질문하면서 분석하였다.

www.kci.go.kr

결 과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개방코딩에서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와 범주의 속성 및 차원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 61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그리고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라는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남성적인 것에 끌림', '연약함을 버리고 싶음'으로 나타났다. '남성적인 것에 타고난 흥미와 소질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약함을 버리고 능력으로 당당해지고 싶다'는 내적 동기로 인해 참여자들은 열정적인 삶과 희소성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된다.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참여자의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남성중심적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의 중심 현상은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들의 의미는 참여자들이 여성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제약들을 벗어 버리고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열정적이고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주어진 많은 제약들을 끝없이 이겨나가는 힘든 도전과 극복의 여정이 있어야 한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과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서 '남성중심적 조직에 속하고 싶음', '남성중심적 직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짐'이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인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정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과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은 '가족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갈등을 겪음', '도달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힘'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 현상이 맥락적인 조건에서 존재하거나 특정한 조건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쓰인다.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

www.kci.go.kr

에서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과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킴',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용기를 냄' 그리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음'이 나타났다.

표 2. 남성중심적 직업을 선택한 여대생들의 직업결정과정 개념의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1. 남성적인 것에 끌림	남성적인 분야에 소질을 보임	수학, 과학을 잘 함 기계를 잘 다룸 운동을 잘 함
		남성성에 대한 흥미가 있음	제복에 대한 동경을 가짐 남성적인 여성 캐릭터에 매력을 느낌
인과적 조건	2. 연약함을 버리고 싶음	아버지(또는 남자형제와) 당당히 맞서고 싶음	아버지의 보수적인 면에 저항감을 느낌 남자형제와 차별을 받음
		남성에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음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음 남성에 대해 경쟁심을 느낌
		힘에 대한 선망을 가짐	통제와 조종에 대한 욕구가 있음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음
		집안의 아들역할을 대신 하고자 함	안정된 직업을 삶의 필수조건으로 여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낌 집안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함
중심 현상	3.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	승부욕과 도전 정신이 강함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고 싶음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 함
		주체적으로 살고자 함	활동적/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음 독립적으로 살고 싶음
		목표를 향해 순수한 열망을 품음	직업을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 도달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함 돈보다 이상과 자기실현을 더 중요시 함
중심 현상	4.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음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고 싶음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음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음 직업적 자존감을 중요하게 여김
맥락적 조건	5. 남성중심적 조직에 속하고 싶음	남성중심 조직에 잘 적응함	남성을 이성으로서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며 편하게 느낌 남녀공학에서 리더 역할을 함 조직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중요시 함
		여성중심 조직을 피하고 싶음	동성 또래집단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음 여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낌
맥락적 조건	6. 남성중심적 직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짐	남성중심적 직업 모델을 경험함	책, TV, 영화 속의 인물의 영향을 받음 주변 사람 중에 목표 직업의 모델을 알게 됨
		아버지를 모델링 함	직업 선택에 관해 아버지의 조언을 받음 아버지의 직업을 잇고자 함

www.kci.go.kr

표 2. 남성중심적 직업을 선택한 여대생들의 직업결정과정 개념의 범주화 (계속)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재적 조건	7. 가족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갈등을 겪음	부모와 직업선택에 대해 갈등을 겪음	부모가 전통적인 여성직업을 원함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부모가 걱정함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갈등을 겪음	결혼과 육아에 부담을 느낌 독신으로 살고자 함 이성친구와 직업결정에 대해 갈등을 겪음
중재적 조건	8. 도달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힘	압박감을 느낌	준비 시간이 부족함 준비 비용이 부족함 경쟁이 치열함
		직장생활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예견함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에 대해 염려함 채용과 승진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염려함 체력적 한계에 대해 염려함
작용/상호작용 전략	9. 자신의 뜻을 관철시킴	자기주장적임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여 지지를 얻어냄 반대하는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지지를 얻어냄
		단호하고 대범함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용기가 있음 반대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감
작용/상호작용 전략	10.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용기를 냄	부모의 지원을 받음	부모가 자랑스럽게 생각함 부모가 지지하고 격려함
		주위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음	주목과 관심을 즐김 잘 하고 있는 여자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음
작용/상호작용 전략	11. 어려움에 굴하지 않음	장애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음	제약에 부딪혀 유사한 대안을 탐색함 실패해도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함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함	남성에게 이성이 아닌 동료로 인식되고자 함 남성조직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함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
결과	12. 긍정적 확신을 갖고 전진함	여성성을 살리려 함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인식함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둘 다 지켜내고자 함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더해감	자신과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가짐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전진함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라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여 나타난 결과 '긍정적 확신을 갖고 전진함'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핵심 범주: 특별한 삶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기

핵심범주는 Strauss가 제시한 핵심범주의 6가지 준거를 적용하였다. 그 6가지 준거는 i) 자료에 자주 나타나고 ii)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iii) 다른 범주와 쉽게 연결되고 iv) 이론을 함축하고 v) 이론이 단계적으로 진척될 수 있어야 하며 vi) 분석에 있어

www.kci.go.kr

서 최대한의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Strauss & Cobin, 2001).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난 남성적인 영역에 대한 소질과 흥미를 갖고 있었다. 성장과정 중 가정과 사회에서 겪게 되는 성차별 또는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능력으로 성차의 벽을 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고, 특별하고 영향력 있으며 사회에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품게 한다.

참여자들은 학령기에 다양한 또래관계, 학교활동을 경험하면서 남성 또래와의 관계에 잘 적응하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소속감과 결속력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다. 일부는 여성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오히려 남성중심 조직을 선호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TV, 영화, 책 혹은 주변에서 남성중심적 직업모델을 경험하게 되며 어린 시절부터의 자신의 기질과, 포부, 또래관계에서 발견한 자신의 특성 등을 토대로 남성중심적 직업을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일부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버지의 직접적인 조언을 받거나, 아버지와 동일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많은 제약에 부딪힌다. 남성중심적 직업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역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직업 선택과 관련해 부모나 이성친구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내적인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선택한 남성중심적 직업은 대부분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 어렵게 진입한 이후에도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 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염려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기주장성, 단호함, 대범함 등의 타고난 기질로 이러한 갈등, 압박감, 염려를 이겨내고, 보다 특별한 삶을 위해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들의 결정과 의지는 결국 갈등과 염려보다 더 큰 지지와 기대, 주목과 관심을 끌어낸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내적인 힘과 주변의 지지와 기대, 주목을 원동력으로 하여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에 놓여있는 많은 제약과 한계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 이러한 도전이 늘 기대한 성과를 즉각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 해 나간다.

이와 같이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특별한 삶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기'로 기질과 선호 및 그로부터 비롯된 삶에 대한 남다른 포부를 바탕으로 사회에서의 내적, 외적으로 특별한 성취를 이루고자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별한 삶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기'는 동기수준, 이행태도의 2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동기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이행태도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에 따라서 차원을 달리한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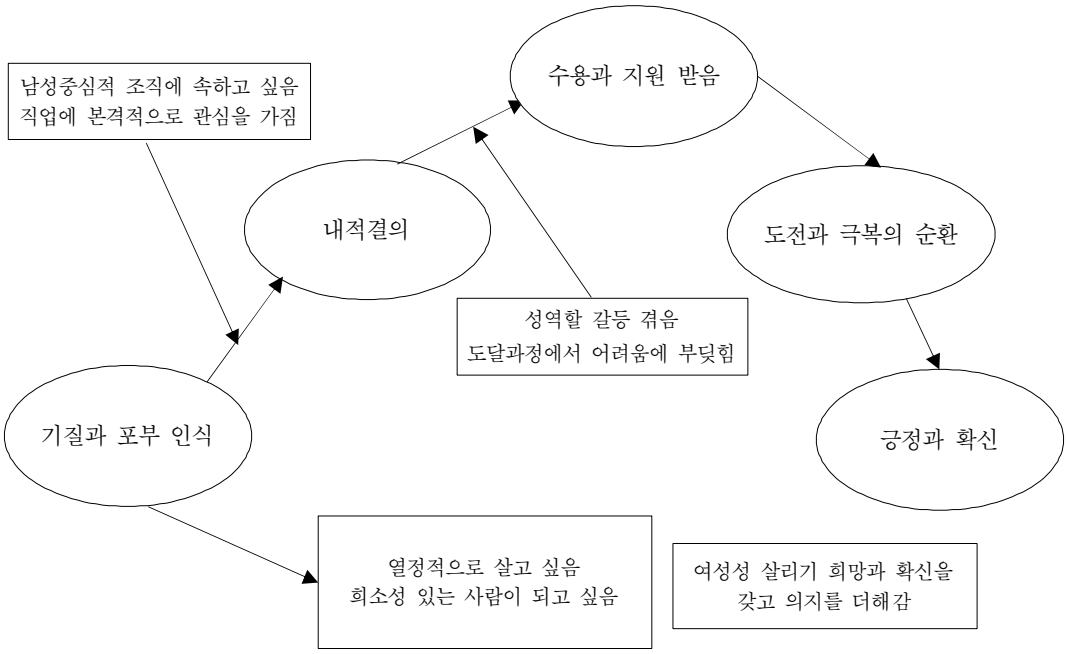

그림 1.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결정과정 단계

'특별한 삶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기'의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남성중심적 직업을 결정하여 긍정적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과정은 기질과 포부의 인식 단계, 내적결의 단계, 수용과 지원 단계, 도전과 극복의 순환 단계, 긍정과 확신의 단계 등 다섯 가지 과정으로 나타났다(그림 1).

기질과 포부 인식 단계

남성중심적 직업을 결정하는 첫 시작은 자신의 기질과 그로 비롯된 포부를 인식 할 때이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들에 소질과 흥미를 나타냈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에 저항감을 갖고,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는다. 장차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업을 갖게 될 것을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남성과 능력으로 대등하게 겨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여자들은 이 단계부터 남성중심적 직업 또는 진취적이고 강한 여성 캐릭터에 동경과 선망을 갖게 되며 이것이 실제 직업선택과 일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질과 포부 인식 단계에서는 남성적인 것에 끌리는 강도가 강할수록, 연약함을 버리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빠르게 이어졌다.

www.kci.go.kr

내적결의 단계

내적결의 단계는 참여자들이 열정적인 삶을 살며,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남성중심적 직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참여자들은 평범하고 무던한 삶,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완강히 거부한다. 이러한 열망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특별하고 영향력 있으며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남성중심 조직에 잘 적응하는, 혹은 여성중심 조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의 특성을 발견한다. 또한 주변에서 남성중심적 직업의 모델을 경험하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아버지를 모델링하면서 남성중심적 직업을 만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거나, 스스로 느끼는 역할 압력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또한 목표 직업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렵고 치열한 과정에 대해 알게 되고, 도달 이후 직업 현장에서 만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한 정보도 획득하게 되면서 압박감과 염려를 느끼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는 자기주장성과 어려움을 헤쳐 나갈 용기이다. 참여자들은 내적, 외적 갈등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서도 꿈을 향한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는다. 반대의견들을 설득시키고, 어려운 길을 헤쳐 나갈 용기를 갖고 도달 과정에 진입한다.

지지와 수용 단계

참여자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결국 가족과 사회의 반대와 염려들을 물리치고, 지지와 수용을 얻어내기에 이른다. 평범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참여자들이 강한 의지와 가능성을 보였을 때 반대와 우려는 더 큰 지지와 찬사로 바뀌었다. 참여자들 자신도 두려움과 염려를 안은 채 내디딘 발걸음이었지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 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통해 나날이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앞서서 같은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여자 선배들의 성공적인 모습을 본보기로 삼으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요인은 참여자들이 주변에서 받는 지지와 기대, 찬사들을 또 하나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는 활력제로 사용하며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동일시하며 용기를 내는 것이다.

도전과 극복의 단계

참여자들은 내적 결의 및 주변으로부터의 지지와 수용을 바탕으로 목표 직업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에 본격적인 도전을 해 나간다.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경우 보다는 거듭되는 실패, 혹은 스스로 잡은 높은 기준으로 인해 도전의 연속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도전은 참여자들의 성별이 '남성'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될 수밖에 없지만, 우선은 목표 직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도전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며 하나씩 쌓여 가면 다음 단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이 실현된다. 그러나 실패가 반복되고 원하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중재적 조건이었던 갈등과 압박감, 어려움에 대한 염려들이 다시 작용하는 내적결의 단계 이전으로 퇴행하며, 다시금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통해 내적결의

www.kci.go.kr

및 지지와 수용단계를 거친 후 이 단계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긍정과 확신의 단계

목표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크고 작은 도전들이 소기의 성과들을 나타내고, 주어진 한계들 또한 하나씩 극복해 나가게 되면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갈등이나 염려 없이 직업 결정 및 그 결과로 펼쳐질 앞날에 대해 긍정과 확신을 갖게 된다.

특히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다. 처음엔 남성중심적 직업을 갖기 위해 '여성성'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오히려 남성과 차별화 되는 강점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결혼, 출산 및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독신을 결심한 참여자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직업생활과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하는 결심을 한다. 아직까지는 여성의 소수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미래에는 모든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는다.

무엇보다 선택한 직업을 통해 '열정적인 삶'을 살고,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이룰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는다.

논 의

중심현상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결정과정의 중심현상은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과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의 의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삶이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삶인 동시에, 사회의 공익과 정의를 위해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삶이다. 또한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의 의미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과 맥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그 결과로서 평범하지 않고, 아무나 쉽게 도달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의 하위범주는 '승부욕과 도전정신이 강함', '주체적으로 살고자 함', '목표를 향해 순수한 열망을 품음'이었고,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의 하위 범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남성중심적 조직에 소속 되고 싶음'과 '남성중심적 직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짐'이라는 맥락적 조건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졌다.

이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당대를 앞서가는 여성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인 영재학생에 대해 연구한 Terman (1925)은 우수 여학생들은 일반적인 여학생들보다는 우수 남학생들과 더 유사점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우수 여학생들은 강하고, 자신만만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보다 높은 성취 욕구를 가졌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Terman(1925)과 Kaufman(1981)의 연구 모두 이러한 우수 여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우수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과 지위가 낮은 직업을 선택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Anold

www.kci.go.kr

(1993)는 우수 여학생의 성취를 제한하는 요인이 자녀양육 등 전통적인 여성역할과의 갈등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최근의 국내연구에서도 여전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인 Kindlon(2006)은 공부,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분야에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여학생을 지칭하기 위해 '알파 걸'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우리나라에서 '알파 걸'의 실재 및 진로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최윤진, 임현정, 2010)에서 국내의 '알파 걸'들은 중고등학교 때 우수한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높은 직업포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적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알파 걸'들이 중고교시절에는 이공계 등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분야에 대한 포부를 나타냈지만, 실제 전공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고교시절의 직업포부가 실제 직업선택으로는 연결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은 지금껏 여성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의 대상이었던 영재 여학생, 우수 여학생 및 최근의 '알파 걸'과 유사한 특성도 많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바로 대부분의 우수 여학생이나 '알파 걸'이 높은 직위와 보수가 보장되면서도 여성의 성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호한 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위나 보수보다는 그 직업 자체에 흥미와 매력을 느끼고 선택하며,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기존 연구의 우수 여학생 및 알파 걸의 직업 선호에 대한 이 같은 차이점은 '직업 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Kalleberg(1977)은 직업 가치를 직업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을 중요시 하는가를 중심으로 정의를 내렸다. 김충기(1999)는 직업가치란 현재나 미래에 종사하려는 직업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직업가치는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직업선택에 있어 어떠한 가치가 행동규준으로 중시되는 가를 기준으로 직업가치의 유형들이 구분되고 있다. 이중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대체로 통용되는 Klleberg(1977)의 정의에 의하면 직업 가치의 하위영역은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직업가치는 직업에 있어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실현하여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헌신함,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며 직업을 통해 발전을 이룸으로써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직업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반면 외재적 직업가치는 경제적인 도구, 권력추구, 개인주의와 사회인식을 중시하는 등 직업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측면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중시한 가치들은 기존의 직업가치 관련 연구들에서 남성이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치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근무시간, 근무환경,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반면, 남성은 발전가능성, 성취성, 권위주의, 독립성, 이타성 등을 중시한다고 나타났다(탁진국 1995). 이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이라는 중심현상의 하위개념들인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고 싶음', '독립적으로 살고 싶음' 그리고 또 다른 중심현상인 '희소성 있는 사람

www.kci.go.kr

이 되고 싶음'의 하위개념들인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고 싶음',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음', '직업적 자존감을 중요하게 여김'과 일치한다.

또한, 직업가치를 크게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로 구분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내재적 직업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에서의 우수여학생이나 알파 걸들이 보수와 지위, 명예, 직무여건, 사회적 인식, 안정추구 등과 같은 외재적 직업가치를 보다 중시하거나 내재적 직업가치와 비슷한 정도로 중시한 반면, 남성중심적 직업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성취성, 이타성, 흥미, 만족감, 자기훈련, 자아발견, 자아실현, 사회헌신, 이상주의 등의 내재적 가치를 더 지향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외재적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므로 조절, 변경, 대체가 가능하지만 내재적 가치는 개인의 기질과 신념에 기인한 것이므로 조절, 변경, 대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진로장벽을 인식하여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의지를 갖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맥락적 요인 가운데 '남성중심적 조직에 소속되고 싶음'은 참여자들이 청소년기에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통해 자신의 기질적인 특성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여학교, 혹은 동성 또래집안에서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시에 남녀공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남녀공학에서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고, 남학생들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은 남성이 함께 있는 조직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남녀공학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학교에서의 불편한 대인관계의 경험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서는 여성중심적 직업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이렇듯 남녀공학에서의 긍정적 경험 또는 비공학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향후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남성중심적 직업을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달리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철회하지 않게 하는 단초가 된다. 이에 대해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 어느 쪽이 여학생의 진로발달과 직업선택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 다른 맥락적 요인인 '남성중심적 직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짐'은 참여자들이 매체나 주변인물을 통해 남섬중심적 직업모델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나타난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이거나, 아버지를 직업에서의 역할모델로 삼고 동일시함으로써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아버지의 조언을 받거나 동일시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항심, 2007)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러한 '역할모델'의 중요성은 어린 시절 만화나 동화의 남성적 캐릭터에 끌렸고, 직업을 결정한 이후 갈등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여자선배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인과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www.kci.go.kr

핵심범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결정 과정은 '특별한 삶을 위해 의지를 갖고 도전해 나가기'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남성적 기질과 흥미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연약함'을 버리고 싶다는 동기를 통해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과 '희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라는 포부를 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갈등을 겪는 정도와 직장생활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예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 시켜 나가고,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용기를 내며, 도달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그 결과 긍정적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 '특별한 삶을 향해 의지를 갖고 도전해 나가기'를 통해 밝혀진 참여자들의 직업결정과정은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제약과 한계 앞에서 위축되어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의지를 갖고 도전해 나가는 것은 높은 자아탄력성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 수준이 높은 집단은 외향적이고, 성실하며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본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추구하는 외향성, 목표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성실성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추어 자아탄력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과 대부분 일치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자아탄력수준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주변의 반대를 설득하고, 선입견에 대항하며, 체력적 한계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는 장기적인 과제의 연속을 잘 견뎌내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부정적인 역할을 자아탄력성이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10).

한편 참여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우수여자청소년들의 특성과도 다르다. 학업우수 여자청소년들은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인해 높은 자존감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일반 여자청소년에 비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지만 다양한 직업 분야를 선택하기 보다는 주로 연구직과 고위 관리자 등 한정된 직업분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혜, 2006). 하정(2008)의 연구에서도 학업우수 여자청소년들이 직업결정과정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접하고 영향을 받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직업은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업우수 여학생과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학생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여자들이 여성에게는 생소한 영역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하며 오히려 평범하지 않다는 특성 자체가 직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불확실성 회피성향'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 회피는 '불확실과 모호함

www.kci.go.kr

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정도'라고 정의된다(Hostede, 1980). Hofstede(1995)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문화간 차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불확실성 회피'는 권력거리, 개인주의-집합주의, 남성성-여성성과 함께 연구를 통해 밝혀진 4가지 차원의 문화간 차이 중 하나이다.

불확실성 회피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서는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여 규칙과 형식을 중요시 하며(Hofstede, 1995; Mooij & Hofstede, 2002), 개인이나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변화와 혁신성이 저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hyne, Teagarden, & Panhuyzen, 2002). 우리나라는 Hofstede(2005)의 이후 연구에서 불확실성 회피지수가 측정된 74개국 중 23-25위에 위치해 중상위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우리나라의 높은 여성 교육수준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율이 낮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합되는 직업군으로의 편중이 높은 현상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Hostede(1995)는 불확실성 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성취동기를 제시했다. 성취동기는 어떠한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내적 의욕이나 성향을 말한다. 특히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 내고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려는 동기를 말한다. 따라서 성취동기의 수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감수하는 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박세강(201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문화권에서 자라났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이 불확실성 회피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취동기가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직업결정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에 공헌하고,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두드러진 성취욕구는 여성에게는 도달과정 및 도달 이후의 모든 상황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남성중심적 영역을 회피 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직업결정과정 단계에 대한 논의 및 상담 개입

본 연구에서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직업결정과정은 기질과 포부 인식단계, 내적 결의 단계, 수용과 지원 단계, 도전과 극복의 순환 단계 그리고 긍정과 확신의 단계 등 5단계로 밝혀졌다.

Tiedman과 O'Hara(1963)의 연구는 진로결정과정 연구의 시초로서 후속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의 직업결정과정 단계는 Tiedman과 O'Hara(1963)의 예상기와 실행기를 모두 내포 하면서도 나름의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기질과 포부 인식단계'와 '내적결의 단계'는 Tiedman과 O'Hara(1963)의 예상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이론의 예상기에 포함되는 하위 단계인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선택 단계 그리고 명료화 단계를 아우르고 있다. '기질과 포부 인식단계'에서 자신의 남성적 기질과 포부를 인식하면서 여기

www.kci.go.kr

에 알맞은 직업들을 탐색하고 점차 구체화 하게 된다. '내적결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직업 모델을 경험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직업 선택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 갈등과 개인 내적인 갈등을 겪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 명료해진다.

Tiedman과 O'Hara(1963)의 이론에서 예상기 이후의 단계인 실행기는 다시 적응 단계, 재형성 단계, 통합 단계로 세분되는데 본 연구의 '수용과 지원 단계', '도전과 극복의 순환단계', '긍정과 확신의 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업 선택 이후 가정, 사회 및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실행과정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갈등이 얼마나 충분하게 극복되었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에서 '내적결의 단계' 이후에 오는 '수용과 지원 단계'의 정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즉, 이전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직업 선택을 반대하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가정과 사회가 참여자들의 의지에 굴복하여 이들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주체로 완전히 그 역할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 '수용과 지원'의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며, 성공적인 역할 모델을 찾게 된다.

참여자들에게는 부모를 포함한 가정과 사회의 인식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성인기 이후까지도 자녀의 의사결정에 부모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인 인정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계지향적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조윤경, 2003). 우수여자청소년의 직업결정에 대한 하정(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승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같은 영향력이 '부모와의 조율 단계'라는 직업결정과정의 한 단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정(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조율을 거친 후에 내적 수용단계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적결의 단계가 먼저 나타난 후 부모 및 사회의 지지와 수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차이는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우수한 학업성적을 근거로 선정된 하정(2008)의 연구의 참여자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도전적이이라는 기질적 영향으로 인해 부모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성중심적인 직업을 선택한다는 자체가 부모와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에 맞서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결정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하다. 비록 이들의 남다른 독립성과 진취적인 기질로 주변의 반대나 갈등이 이들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지와 수용의 긍정적인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다. 가정과 사회의 반대와 부정적 인식을 자신의 힘으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본격적인 실행기에서 계속 되는 도전과 극복의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직업결정과정의 단계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소수집단인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로부터 밝혀진 직업결정 과정 단계별로 상담 개입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

www.kci.go.kr

다.

첫째,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질과 포부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는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시기였다. 참여자들은 이른 시기에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기질이나 흥미가 전통적인 성역할과 맞지 않음을 알게 된다. Gottfredson(1981)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적 열망 또는 흥미는 사회화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9세경에 이미 아동들은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자신의 성의 부합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러한 일반적인 여과 과정에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행히도 '걸러지지 않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직업 선택이 아동기의 사회화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면을 고려해 볼 때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남성중심적 직업에 적합한 기질과 흥미를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이미 아동기에 그러한 기질과 흥미를 접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illiard와 Liben(2010)의 최근 연구에서는 3-5세 유아들에게 교사가 단지 '남자 애'나 '여자 애'라는 성별을 구분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만 해도 유아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유아 및 아동기에 정형화된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특히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에 대해 학습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정과 교육기관의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자신의 기질과 포부를 인식한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게 된다. 이 때 남성중심적 직업 모델을 경험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결정 계기가 된다. 일부는 아버지를 직업 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화나 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같은 경로는 참여자들이 실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직업모델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매체의 특성상 직업세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주관적, 감상적인 입장에서 흥미를 위해 다소 과장하고 미화하여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을 결정하는 초기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면, 이후에 실행단계에서 실패나 좌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실제로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에 사관학교 여생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직업결정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사관학교에 입학한 후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많이 느끼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영화나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직업세계의 실제적인 면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지도 자료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참여자들이 많은 내적, 외적 갈등 끝에 남성중심적 직업에 대한 내적인 결의를 다지고, 본격적인 도달 과정에 진입하는 데에는 가정과 사회의 수용과 지지가 큰 자원으로 작용한다. 특히, 남성중심적 직업 세계에서 여성으로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는 같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 하고 있는 여성 선배들의 영향이 매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선배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켜보며 '나도 저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www.kci.go.kr

이와 관련된 연구로 공과대학 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김민선과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도 공과대학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결과기대' 변인에 의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로서 Bandura(1986)는 결과기대의 원천으로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행동으로 인한 실제적인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즉, 직접 또는 간접적인 학습을 통해 특정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에게 그들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전문가와의 접촉은 진로관련 결과기대를 향상시키고, 진로장벽으로 인한 좌절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적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실행기에 들어서는 시기, 즉 남성중심적 직업을 위해 관련 학과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학하여 적응해나가고 있는 단계인 고등학교 및 대학 1~2학년 시기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지원이 유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남성중심적 직업에 진출해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선배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초청 강연, 좌담회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남성중심적 직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면 여성으로서 예상되는 직업세계에서의 어려움들에 실제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들의 결과기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전과 극복의 순환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실행기에 접어들어 목표 직업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매진한다. 이러한 도전은 단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직업의 특성에 따라 실패와 재도전을 계속적으로 순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체력적 한계, 치열한 경쟁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자칫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그 결과 희망 직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이 단계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또래집단과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큰 지지가 될 것이다.

즉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나 여학생이 많지 않은 학과가 주체가 되어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여학생들의 집단을 만들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여학생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남학생의 참여도 다른 의미에서 큰 지지가 될 것이다. 즉, 실제 직업세계에서 주로 함께 일하게 될 동료인 남성이기 때문에 이들과 교류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여학생들이 준비과정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하도록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남성중심적 직업을 갖기 위해 여학생이 극소수인 학교 또는 학과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소속감과 연대감이 자신감을 향상 시키고, 힘든 과정들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섯째, 이같은 직업결정과정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진로결정과정을 밟는 경우에 비해 내적, 외적 갈등을 많이 겪는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게 된 자신의 남성적인 기질이나 흥미와 사회적 기대

www.kci.go.kr

의 부조화, 사회와 가정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분노, 남성에 대한 경쟁심, 여성중심 집단에서의 부적응, 남성중심적 직업세계에서의 수행에 대한 두려움 등은 다양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여성성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학생, 또는 그러한 기질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에 대한 상담적 개입은 진로상담의 영역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적 개입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학생들의 직업 결정이 반항이나 회피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다른 기질과 흥미, 직업적 포부를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여성성 또한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여성이자 직업인으로서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남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의 진로발달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한 질적 연구로서 심층 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직업결정과정에서의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과 과정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최근의 우수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우수한 학업 성적'에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리더십, 성취욕구, 자아탄력성, 성실성 등 우수여성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학업성적이라는 잣대에 의해 우수여성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던 여성들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여성 진로발달에 대한 이론을 확립,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 더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존의 진로결정 또는 직업결정과정 연구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대학교 3학년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지한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입시를 주된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진로지도는 사실상 진학지도인 경우가 많고, 이 시기의 진로결정은 적성과 흥미,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진로결정이라기 보다는 학생의 성적과 진학 가능한 학교 및 학과를 짝짓는 전공결정 정도의 수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여전히 진로와 직업결정에 대해 고민하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휴학이나 편입, 재입학 등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전공과 실제 희망하는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중고교시절에 1차적인 진로결정을 하지만 대학생활을 하며 기존의 결정을 더욱 확고히 하거나, 변경하는 2차적인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실제적인 직업결정과 이에 대한 준비는 학부 및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들이 세부전공을 결정하고, 대학생활도 중반기를 넘긴 3학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견해를 연구참여자 선정에 반영

www.kci.go.kr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및 진로지도 현실과 좀 더 부합되는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여성 진로지도의 또 다른 이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것이다. 출산, 육아 이후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높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 및 출산을 기점으로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다. 특히 대졸 이상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장으로의 복귀율이 더욱 낮아 L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윤혜경, 2008).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힘든 업무이고, 출산, 육아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배려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남성중심적 직업 종사자들에게 더 빈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성중심적 직업에 실제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이들의 경력단절과 복귀 및 경력지속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의 다양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로 인해 남성들 가운데에도 여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진로선택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직업의 사회적 인식을 더 중요시한다는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여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직업결정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없지만 간호사, 항공승무원, 사서, 초등학교 교사 등 비전통적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에 대한 해외연구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전통적인 남성중심적 직업에서 불만족을 느낀 후 비전통적 직업으로 전향했으며, 전향한 후에도 직업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mpson, 2005). 이는 남성중심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이 사회적인 주목과 기대를 받는 현상과 상이하다. 이 같은 양상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한다면, 다양한 인력활용과 양성평등의 실현 측면에서 남학생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충기 (1999). 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권태희, 조준모 (2007).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여성연구, 73, 5-51.

김민선, 서영석 (2009).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맥락적 지지와 진로미결정 관계에서 대처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4(4), 773-788.

김요완 (2009).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59-583

남경민, 유성경, 하정, 강혜원, 곽형선 (2010).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1(2), 775-793.

노동부 (2007). 남녀근로자현황분석.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2009). Jop Map. 서울: 한국고용정보

www.kci.go.kr

원.

박세강 (2010). 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가 불확실성 회피 성향에 주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혜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신영주, 김유숙 (2009). 여성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근거이론 접근 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683-710.

유근준, 김봉환 (2010). 대상관계의 변화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33-551.

하 정, 유성경 (2007).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8(4), 1521-1540.

윤혜경 (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 진로탐색경험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4(1), 83-112.

이경순 (2008). 경험용서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37-252.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결정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53-366.

이현림, 천미숙 (2003). 성인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1-34.

이항심 (2007). 부모애착, 성역할정체감, 자존감 및 진로장벽의 구조모형 검증: 우수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용자 (1994). 성역할 관련 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복희 (2009). 한국의 여성고용형태와 비전통적 직업의 여성고용확대에 대한 고찰: 항공관련직업들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7(1), 143-161.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 의식-우리 의식과 개 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183-197.

최윤진, 임현정 (2010). '알파걸'의 실재 및 진로발달 특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203-230.

최지영 (2008). 여성과학자의 성장과정 연구: 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 153-176.

탁진국 (1995).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61-174.

통계청 (2006).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하정 (2008).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31-454.

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

www.kci.go.kr

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Anold, H. S. (1993). Undergraduate aspiration and career outcomes of academically talented women: A discriminant analysis. *Roeper Review. 15*(3), 169-176.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s, NJ: Prentice Hall.

Betz, N. E., & Hacker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Byrne, E. M. (1993). *Women and science: The snark syndrome*. London: The Falmer Press.

Creswell, J. W. (2005).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4에 출판)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Hilliard, L. J., & Liben, L. S. (2010). Differing levels of gender salience in preschool classrooms: effects on children's gender attitudes and intergroup bias. *Child Development, 81*(6), 1787-1798.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Hofstede. G. (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Hofstede. G., & Hofstede. G. J.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Kalleberg, A. L. (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124-143.

Kaufmann, F. (1981). The 1964-1968 presidential scholars: A follow-up study. *Exceptional Children, 48*(2), 164-169.

Kindlon, D. (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걸 [*Alpha girls: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최정숙 역). 서울: 미래의 창. (원전은 2006에 출판)

Mooij, M., & Hofstede, G. (2002)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consumer behavior: implications or international retailing, *Journal of Retailing*, *78,* 61-69.

Rhyne, L. C., Teagarden, M. B., & Panhuyzen. W. (2002). Technology-based competitive strategies: The relationship of cultural dimensions to new product innovation,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13*(2), 249-278.

Schreiber, R. S., & Stern, P. N.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신경림, 김미영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2001에 출판)

Simpson, R. (2005). 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 Career entry, career orientation and experience of role strai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2*(4), 363-380.

Strauss, A., & Corbin, J. (2001). 근거이론의 단계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98에 출판)

www.kci.go.kr

Super, D. E. (1990). A life-span, li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Tied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Prinston, N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d.

Terman, L. M. (1925).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Turner, S. L., & Lapan, R. T. (2005). Evaluation of an intervention to increase non-traditional career interests and career-related self-efficacy among middle-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516-531.

1 차원고접수 : 2011. 7. 26.
심사통과접수 : 2011. 9. 14.
최종원고접수 : 2011. 9. 2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1, Vol. 16, No. 3, 303-329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Female Undergraduates who Want the Male-dominated Job: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Young Shil Kim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recent women's educational standard is more higher than any other period but rate of using human resources is the lowest level among the OECD nations. As the reason of this phenomenon, the career choice attract attention. Traditionally, job is classified female-dominated job from male-dominated job, and most women still avoid male-dominated job. If this unequal concentrated phenomenon is relieved, diversity using of human resource will be available. For the purpose, this study try to determine the experience structure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female undergraduate who want the male-dominated job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method, and to determine factors that work negative or positive on the process to use for the career consult. Grounded theory based data analyses resulted in 61 concepts, 27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from the recorded data of 8 female undergraduates who want the male-dominated job. The core category was "For the special life, keeping challenging with the will". A paradigm model consist of the casual condition, central phenomenon, contextual condition, intervening condition, actions/reactions and the result was proposed. And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five stages with time i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he stage of awareness about the trait and aspiration, the stage of internal determination, the stage of support and accept, the stage of challenge and overcome, and the stage of affirmation and confidenc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male-dominated job,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grounded theory

www.kci.go.kr